

## 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감사:** 바자회를 무사히 마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준비하고,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알림:** 2013년 교회 요람 발간에 따른 주소, 전화번호, 상호가 변경된 성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 남녀 선교회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여 선교회 임원 모임이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남 선교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총회일시: 12월 9일 1부예배 후

◎ **협력:** 장애우들이 만든 쿠키 시식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협력 바랍니다.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월례회:** 3남 선교회, 2여 선교회 월례회가 유아실과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 11월 새벽 기도회 본문

2일: 옵기 18:1-21 사망에 이르는 악인의 운명  
16일: 옵기 27:1-12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30일: 옵기 33:14-33 말씀을 찾는 갈급한 마음

9일: 옵기 22:1-20 추정하는 죄목, 직설적인 정죄  
23일: 옵기 30:16-31 광야길을 통과하는 티끌 인생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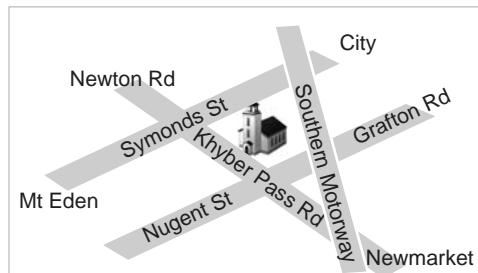
밀알장애인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http://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 오는길



2012년 11월 18일

14권 47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 바자회 마치며

약간은 이를 시작인 8시에 시작하는 바자회를 준비하시기 위해 6시부터 한두 분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부터 웬만한 준비는 거의 해놓았지만 아무래도 먹거리는 즉석요리가 제격이라 십시일반 만든 재료와 요리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자리에 Setup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쪽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 비즈니스를 하루 문 닫고 오신 집사님, 곤히 잡든 갓난아기를 이불과 함께 둘러업고 장막을 치기 위해 오신 집사님, 바깥 후미진 곳에서 내리는 비를 감내하면서 숯불을 피우는 집사님, 50 cent 혹은 1달러 하는 옷가지를 보기 좋게 진열하는 집사님, 행여 놓친 것이 없을까 하여 이곳저곳을 점검하는, 마음만은 청춘인 장로님, 각기 맡은 위치에서 다하는 최선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4시간이 지난 현재 시각이 오전 12시, 대부분 먹거리들이 여전히 제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 팔릴까? 은근히 걱정됩니다. 다 팔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오랜 시간 준비한 우리 성도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할 텐데 성급한 믿음 없는 목사는 저으기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빠른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내리는 비가 사람들의 발길을 묶어버린 듯 더는 또 다른 손님들이 올 것 같지 않아 이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먹거리들은 10분간의 땡처리로 우리 서로 자축하며 휘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제 여러 성도들의 섬섬옥수가 모였던 바자회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한 만큼 결과가 없어서 서운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나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이런 수고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불쌍한 일일 텐데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보시고 아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또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지체들이 만날 수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 교제하고 기도하는 영적 자산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음에 감사합시다.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한 목사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 이태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45:1-3
개회송	인도자
참회의 기도	찬양대
※ 찬송	다함께
※ 성시교독	다함께
※ 신양고백	다함께
찬송	다함께
대표기도	박병민 집사
성경봉독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이태한 목사
찬송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다함께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방명아 집사
성경봉독 / 읍 28:1-11
설교 / 지혜를 찾아서 / 심창진 목사
찬송 / 주님의 솜씨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조은희 집사
성경 / 삿 16:18-22
설교 / 체포된 삼손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544장
주기도 / 다함께

건축헌금 지난주: \$ 10.00  
총계: \$ 624,048.19

### ◎ 11월 교회일기

바자회:  
11월 17일(토)  
정책당회  
11월 24일(토)  
공동체 주관 수요예배:  
11월 28일(수)

### ◎ 11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고성일  
새신자 안내:  
김광자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남영수 집사  
다음 주일 1부: 박일영 장로  
다음 주일 2부: 장연식 집사  
11월 28일 수요기도: 이기중 권사  
11월 28일 애찬기도: 김현주 집사  
12월 2일 1부: 박제용 장로  
12월 2일 2부: 진혜령 전도사

## 금주의 기도제목

### 1. 국내

방학 중에 있는 대학생들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키워들이 이민족들을 대할 때 문화적 우월감에서 벗어나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 2. 교회와 공동체

태국공동체: NIBCNZ 선교센터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효과적인 훈련을 받아 열방을 선교 할 수 있도록, 안식년을 맞은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필리핀)가 영육간에 평안과 쉼을 얻으며,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도록.

총회를 앞둔 남녀 선교회원들이 기도로 총회를 준비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은혜로 마무리하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도록, 교회 이전이 모든 성도들의 합심된 기도로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 3. 해외

캐나다 북동부 누나부트 주의 원주민 언어 이누이트어 성경이 완료되었다. 원주민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도록.

### 갈보리 좋은 글

#### 무엇을 좋아 경영하는가

그 옛날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니까, 많이 읽고 있으니까, 성경 어느 책 어디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성경 어느 본문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 결정을 이렇게 할 것인가, 묻고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언제든지 우리는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나 사회적 동기를 먼저 생각하면 안된다. 특별히 내 명예나 내 위상같은 것은 저금 이지려지고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결정이 휘청 거려서는 안된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경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된다.

신령한 것에 있어야 한단 말씀이다. 성경에 보면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걱정하며 돌아갔다고 한다. 그럴 수가 없었다. 용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는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육체를 좇아 경영했다.

그런고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